



우리 학생들의 희망이 곧 충남의 미래!



홍 성 현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약력

경북대학 세무회계학과 졸업, 호서대학교 경영대학원 재학중, 제8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충남복지재단위원회 이사



△ 정치 입문 계기?

☞ 처음에는 정치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주변 분들의 추천도 있었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정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 의정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

☞ 먼저 기억에 남는 일은 차량지원이 없던 방법대원들에게 2009년 차량을 지원해 준 일이다. 기존에는 방법대원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 이게 말이나 되나! 그래서 방법대에 차량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도에 요청을 했다. 하지만 답변은 법인이 아니라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방법대가 법인이 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시골지역은 방법대원들의 활동이 꼭 필요한데, 꼭 법만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싶어 다시 한 번 검토 요청을 했다. 결국엔 당시 도지사님과 도의원들을 설득하여 공동으로 준비를 시작했고, 천안시장에게 권고하여 획기적으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전국 최초로 모든 학교에 100% 에어컨을 설치해준 일이다. 의원은 남이 안하는, 아니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무엇보다 이 일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 교육위원장으로 앞으로 활동 계획?

☞ 10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맡게 됐다. 위원장으로서 충남 지역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시설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충남은 시골과 도시가 얹혀있는 복합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농촌지역에는 교육시설이 많이 낙후됐다. 도시지역과 완전히 똑같은 조건까지는 어렵겠지만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설 환경이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8대 도의원 당시 충남 초등학교에 40%, 중학교에 60%, 고등학교에 80% 밖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있지 않았다. 임기 2년 동안 전국 최초로 100% 설치를 한 것이다. 앞으로도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천안시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은?

☞ 천안은 수도권이라 1시간 이내로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 교육인프라나 사업·기업 인프라를 잘하다보면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 천안의 인구가 급속도로 늘다가 조금 주춤하는 상태이지만, 수도권에서 가깝고 대학도 많고 우리 시나 도의회



에서 노력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천안시의 가장 큰 현안 문제는?

☞ 첫째는 균형발전(구도심과 신도시) 문제이다. 천안시는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 시골은 발전이 안 되고, 시내중심 서북부쪽으로만 발전되다 보니 격차가 심하다.

두 번째는 천안역사 개발문제이다. 현재 천안역이 65만 도시의 역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이다. 이 문제는 도지사님과 천안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빠른 시일 내로 개발해야 한다.

세 번째는 수영장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종합운동장내에 작은 수영장 하나가 있다. 65만 도시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스포츠문화 활성화에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는 공연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동남구에 예술의 전당은 있지만 서북구에는 없다. 또한 큰 행사를 주최하기 위해선 대강당도 필요하다. 동남구에 있는 동서홀은 일반 시민이 사용하기 어렵다. 누구나 쓸

수 있는 언제나 대관할 수 있는 문턱이 낮은 좋은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학생 전용 체육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천안에는 학교도 많고 학생들도 많은데 학생들을 위한 전용 체육관이 하나도 없다. 소년체전, 전국체전에서 성적에만 연연해하지 말고, 그 운동을 학생 누구나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체육관부터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충남연구원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충남발전연구원, 아니 이제 충남연구원으로 바뀌었지! 충남연구원은 우리 도정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을 잘해왔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만큼 앞으로의 기대도 크다. 도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연구를 해주길 바란다.

대담 : 충남연구원 오혜정 환경생태연구부장
사진 및 정리 : 충남연구원 정봉희 홍보팀장